

가장 중요한 요점들: 성경적 남녀 평등 논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 지음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www.frauen-vergebt-uns.de)

학문적 논쟁은 방대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핵심 본문들에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에 실제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덧붙입니다.

서론

상호보완주의자와 평등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관한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의 **덫불**이요 **늪**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특히 결혼과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견해를 대변합니다. “평등주의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지도적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대변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단어와 본문의 의미에 관한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이 포함됩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의 표준 저작인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는 존 파이프(John Piper)와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이 편집했으며 684쪽에 이릅니다(2021년 인쇄판). 그루뎀의 방대한 저작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는 856쪽에 이릅니다. 마이크 윈저(Mike Winger)가 최근 이 주제로 만든 영상 시리즈 *“Women in Ministry”*는 상영 시간이 43시간입니다.

논쟁의 평등주의적 혹은 상호주의적 진영에서는, 오로지 바울 서신에만 집중하는 필 페인(Phil Payne)의 책 *“Man and Woman, One in Christ”*가 500쪽이 넘습니다. 론 피어스(Ron Pierce), 신시아 웨스트폴(Cynthia Westfall), 크리스타 맥컬랜드(Christa McKirland)가 편집한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제3판은 698쪽에 이릅니다.

게다가 논쟁의 양쪽 진영에는 그 밖에도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대개 200쪽에서 400쪽 분량입니다.

나의 새 책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2026년 10월 출간 예정)은 이 모든 다양한 논증을 다루기 때문에, 그루뎀의 방대한 저작과 거의 같은 분량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과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자기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짊어지고 있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 바쁘고 늘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이 글에서 나의 목표는 전체 논쟁 가운데서 **중요한** 요점들과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들이란 상호주의적 입장, 곧 상호적이고 동등한 입장으로 가장 분명하게 이끄는 요점들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 중요한 요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골라낼 것입니다. 이 두 핵심 요점은 그것만으로도 상호보완주의적 입장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상호주의자들이 왜 상호보완주의적 입장을 거부하는지 설명할 시간이 1분밖에 없다면, 언급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점일 것입니다.

나의 바람은 이 글이 상호보완주의 입장에 선 형제자매들이 더 나은 곳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위의 하늘은 더 부드러운 파란빛이고, 그 아래의 땅은 더 사랑스러운 초록빛인 곳 말입니다.

먼저 나는 상호주의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호보완주의적 입장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열 가지 본질적인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대체로 정경 순서대로 다룰 것입니다. 다만 결혼과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완전히 그 순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골라낼 것입니다. 하나는 디모데전서 2:12에서 바울이 고른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남자들에게 하라고 규정하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남자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의 끝에 이르면 여러분은 이것들이 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호주의적 관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상호주의적 관점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도 동의하는 공통의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이 공통의 기반이란 여성에 관한 전통적 다수 견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속의 주된 근거로 제시된 것은 여성의 열등함이었습니다. 여자는 본성상 열등하다고 여겨졌고, 그러므로 지위에서도 종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성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곧 사회와 공적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남자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성과 도덕적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괴상한 소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s Alexandrinus),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루터, 칼뱅, 심지어 웨슬리 같은 기독교의 큰 이름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청교도의 대표적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가 1665년에 쓴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본성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 숙고하라고 조언합니다.

“여성이라는 성의 타고난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인내는 결코 적지 않다. 참을성 있고 남자다운 몇몇을 제외하면, 여자들은 대체로 상상력이 활발하고, 여리고, 걱정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며, 쉽게 분노나 질투나 불만에 빠진다. 게다가 그들은 이해력이 약하여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다. 그들은 남자와 아이 사이에 있다. 몇몇은 남자에 더 가깝고, 많은 이는 아이에 더 가깝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뿐이다.” (백스터, A Christian Directory, 제2부: Christian Economics, 1장.)

여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것입니다.

상호주의 학자들과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모두 이 전통적 관점을 마땅히 거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다수 견해에 반대한 존경받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세기에 대 바실리우스(Basilus Magnus)는 여자가 본성적으로 도덕적·지적으로 남자와 대등하다고 힘주어 확인했습니다(바실리우스,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제1강론). 그러나 여자가 본성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다수 견해는 매우 끈질기게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논쟁, 특히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논쟁 끝에,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교회의 다수 견해는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대로, 여자의 본성이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남자의 본성과 참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여성에 대한 바로잡힌 관점의 토대는 창세기 1:26-28입니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로서 동등하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들은 참으로 서로를 보완합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나는 “평등주의자”라는 용어 대신 “상호주의자”(Mutualis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평등주의자”라는 용어를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오해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에게서 성경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남자이고 여자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성적 차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인간됨에 있습니다.

창세기 1:28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일컬어진 다음,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그다음에 언급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16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남자의 다스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더 크고 남자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첫자리에 두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대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남성의 다스림(남자가 여자를 다스림)이 아니라 공동의 다스림(남자와 여자가 창조 세계를 다스림)이었습니다.

구약 전반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서 여자들이 지도적 직무를 맡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리암(출애굽기 15장; 민수기 12장; 역대상 6:3; 미가 6:4), 훌다(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4장), 그리고 특히 드보라(사사기 4-5장)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정 시대 이전에, 백성의 최고 지도자, 선지자, 최고 재판관, 군 최고 사령관의 기능을 한 몸에 지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단 세 사람뿐입니다. 모세, 사무엘,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들이 지도적 위치를 맡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여자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지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이등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남자들과 나란히 온전한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그분은 남자의 삶의 방식과 여자의 삶의 방식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열두 사도를, 그것도 모두 남자로 부르신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은 시대에 매인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열두 족장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열두 지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열두 남자를 자기 주위에 모으는 상징적 행동은,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주위에 새로 형성하고 계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상징의 일시적인 기능은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유다의 후임에 관한 지침을 줍니다. 후임자는 예수의 공적 사역 전체 기간 동안 제자 무리에 속해 있었던 남자여야 합니다(행 1:21-22). 이것은 단 한 번뿐인 일입니다.

열두의 상징에는 그와 같은 무게를 지닌 성경적 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처음으로 증언할 사람들로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택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기사에서 봅니다. 이 상징적 행동은 창세기 3장의 불행이 이제 다시 바로잡히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담으로 하여금 금지된 열매를 먹게 한 하와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으로 죽음의 말을 전한 것이 여자였던 것처럼, 처음으로 생명의 말을 전할 이도 여자였다”(토마스 아퀴나스, 『요한복음 주석』, 요한복음 20장 제3강).

고린도전서 7장

다음으로 우리는 결혼에 관한 신약의 가장 긴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에 이릅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결혼 안의 권위에 관해, 그리고 결혼에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없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권위에 대해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상호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편이 결정권자입니까? 아닙니다. 5절에서 바울은 함께 기도할 시간을 들이는 일과 부부 관계에 관한 결정은 서로 합의하여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혼 안의 상호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서 5:21에서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곧 각자가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예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모든 신자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촉구한 다음, 왜 22-24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특별히 다시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에베소의 몇몇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남편과의 동등한 지위가,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머리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지배의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 역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은유입니다(5:23 참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머리는 무엇을 하는가? 머리는 몸을 양육하고 돌봅니다.

그의 머리와 몸의 은유는 머리가 몸을 양육한다는 당시의 통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으로 자기와 하나 된 백성을 양육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으로, 자기와 한 몸으로 하나 된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5:25-33상).

나는 바울이 여기서 예수께서 세우신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48)

남편들은 더 큰 신체적 힘과 사회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내를 향한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머리 됨이 뜻하는 바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겸손하고 사려 깊게 대하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지시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여성의 사역

오순절에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남녀가 섞인 청중 앞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행 1:14; 2:1-18).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인용하여 그 일을 설명했습니다.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행 2:17).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는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들을 움직여 남자와 여자 모두를 공개적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 여자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행 8:1-4; 18:18-26; 행 11:20의 “사람들”(헬라어 andres, 곧 ‘남자들’) 참조).

서신서들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모두 사역이 영적 은사에 근거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는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촉구합니다.

은사에 관해 가르치는 여러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를 남자에게만 주신다는 암시는 없습니다(로마서 12:3-8; 고린도전서 12:1-30; 에베소서 4:11-13; 베드로전서 4:10-11). 그런 제한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3:28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신약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 가운데에는 빌립의 딸들 같은 여선지자들(사도행전 21:9), 여성 집사 뵈뵈(로마서 16:1-2), 교사인 마리아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선구적인 여성 사도 유니아가 있습니다(사도행전 18장; 로마서 16:3-4, 6-7; 크리스소스토무스(Chrysostomos), 「로마서 강해」 제31설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지역 교회에서 예언하고 기도를 인도함으로써 적극적인 지도적 역할을 맡았음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26에서 “각각”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역 안의 상호성입니다.

요한계시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끌거나 다스린다는 상호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 5장의 위대한 환상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환상은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 사역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10)

이로써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곧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를 행한다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결혼 안의 상호성, 사역 안의 상호성,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함께 서는 남자와 여자.

상호보완주의적 견해에 대한 열 가지 평가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나는 상호보완주의 입장에 선 형제자매들이 믿는 바의 진실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그 견해들이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정확성입니다.

상호보완주의 교사들은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호주의자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남자가 여자를 자애롭게 다스리고, 이끌고, 여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여자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남성 지도권에 대한 본래의 전통적 근거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자가 본성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쩌면 더 넓은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호보완주의적 관점을 성경이 말하는 바와 비교하는 열 가지 요점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역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다수 견해가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자,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여자를 남자의 지도 아래 두는 새로운 정당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역할”이라는 사회학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이 개념은 20세기의 발명품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성경 주석에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91년판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에서는 “역할”이라는 용어가 700번 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도덕적·지적 자질을 주셨고 지도의 은사도 주셨으므로, 이른바 “역할” 배정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배정입니다.

1) 창세기 2장과 3장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나 자기 아내에게 자애로운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이 장들에서 남성 지도권에 대한 “암시들”을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나는 여러 학자가 이 두 장에서 남성 지도권의 암시로 제시한 13가지 요점을 찾아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 남자의 “돕는 자”(helper)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성의 지도적 역할을 함축하는 암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원래 영어로 쓰였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기서 그런 함축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돕는 자”(helper)라는 말을 대개 하급 보조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돕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ezer**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ezer**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정하셨다는 암시가 아닙니다! **ezer**라는 단어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함축은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13가지 암시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살펴보면, 그것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점은 다른 것이고, 훨씬 더 간단합니다.

결정적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른바 암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이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남자들에게 명령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의무라고 남자들에게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에도 창세기 3장에도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이나 남자들의 의무에 관한 진술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2) 구약 전반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지도적 역할을 남자들에게만 맡기셨음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남자 왕들과 남자 제사장들을 듭니다.

왕과 제사장에 근거한 그들의 논증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관한 결정적인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지도적 역할이 남자들에게만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드보라가 모세와 사무엘과 닮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적 역할을 남자들에게만 맡기셨다는 생각과 모순됩니다. 이 규칙은 나중에 구약에 덧붙여진 것이지, 구약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이런 논증을 내놓는다면... 아닙니다. 땅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한 유능한 여성 지도자를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별이었다는 암시는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도 지도자 드보라에 대해 아무런 유보도 표하지 않습니다.

3) 예수

우리는 예수께서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왜 열두 남자 사도를 택하셨는지에 관한 여러 이론에 대해 길게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결정적인 요점은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사실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을 많은 영속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은 미래의 제자들에게 새 제자를 얻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20)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정확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2: 예수께서 주신 영속적인 명령들 가운데에는 지도에 관한 명령, 결혼에 관한 명령, 제자도에 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에서든 결혼에서든 다른 어디에서든 지도가 남자들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명령은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적어도 결혼과 교회에서는 남자가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요 주이신 예수께서는 이 확신을 공유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그분은 그것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 고린도전서 7장

이 장 전체가 남녀 관계에서 완전한 동등성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어떻게 분명히 보여 주는지 논의해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요점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5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부부 관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곧 서로 합의하여 내리라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지시가 남편의 지도적 역할과 결정 책임에 대한 특별한 예외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라는 생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중요한, 아니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부부 관계는 결혼을 다른 모든 관계와 구별하는 몸의 친밀함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결혼의 영적 심장입니다. 이처럼 핵심적인 몸과 영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서로 합의하여 내려야 한다면, 결혼 관계의 다른 덜 중요한 측면에서는 남편이 어떻게든 지도적 역할을 맡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1988년에 상호보완주의 입장은 댄버스 선언(Danvers Statement)에 신중하게 기록되었고, 많은 저명한 목사와 신학자가 이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댄버스 선언은 그냥

실패합니다. 이 선언은 이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논의할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23에서 바울이 “머리” 은유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상반된 견해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베드로의 언급에 대한 여러 설명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가 믿지 못하여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베드로전서 3:6; 창세기 18:12). 그러나 결정적인 요점을 위해 우리가 바울이 “머리”로 무엇을 뜻했는지를 다루거나 베드로의 논증의 세부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요점은 바울과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다스리고, 이끌고,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아내를 위해 결정을 내리라는 지시를 찾으려고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지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이것을 세 번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려 깊게 대하고 귀히 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 중 누구도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지시를 남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덴버스 선언은 아내를 이끌어야 한다는 남자들의 이른바 의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 선언은 남자들이 자기의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인하면 가정에 파괴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덴버스 선언, 고백 10).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어내고 남자들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다스리고, 이끌고,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아내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를 요구하신다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전통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6) 신약에 나타난 여성의 사역

신약에 나타난 여성의 사역에 관해서라면, 상호보완주의 해석자들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여자들이 한 일을 깎아내리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이 지닌 약점에 관해 할 말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요점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의 예를 그들이 다루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그냥 아무 신자 몇 사람 사이에 오간 사적인 신학 대화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맥에 주의하면 이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 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 개척 팀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가 머물며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만, 그는 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가 길을 떠날 때, 새로 생긴 신자들의 무리를 돌보도록 누구를 그곳에 남겨 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팀원 가운데 그곳에 남는 두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도착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염려합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있고 힘 있는 연설가이지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초기 몇 세기의 주석가들은 브리스길라가 가르침을 이끈 교사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예를 들어 크리소스토무스, 「로마서 강해」 제30설교; 크리소스토무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첫째 설교」).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아볼로가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까요? 더구나 주된 교사가 여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바울이 새 신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도록 그곳에 남겨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볼로를 바로잡을 때, 그것은 아무 신자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볼 책임을 맡고 남아 있는 팀원으로서, 그들은 그를 바로잡기 위해 자기들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자기가 훈련한 여성 동역자들과 남성 동역자들을 통해 자기 사역을 어떻게 넓혀 갔는지 보여 주려고 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2에서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2)

충성된 사람들, 곧 신실한 이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입니다. 이 구절에는 성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7)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2-16은 머리 모양 또는 머리 가리개에 관한 어려운 성경 본문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그들이 예언이나 소리 내어 하는 기도로 교회를 인도하는 경우에 관해 몇 가지 바로잡는 지시를 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그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자기들의 지도적 역할 신학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3절에 나오는 바울의 “머리” 은유를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10절에 단어들을 덧붙여 그 뜻을 비틀어서, 그 구절이 실제로 쓰여 있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게 만듭니다.

나는 새 책에서, 필 페인(Phil Payne)의 큰 도움을 받아 나온,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맞아떨어지는 이 장의 해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들이 바울의 실제 말과

모순되는 여덟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결정적인 요점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 분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 사역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도 여자들 앞에서도 예언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여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리 내어 기도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남자를 가르치는 것도, 목회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이끄는 것도, 그 밖의 어떤 사역 활동도 금하지 않습니다.

여성 사역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제한들은 이 본문에 없습니다.

8) 고린도전서 14:34-35

이 구절들은 여자가 교회에서 완전히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세 번,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Elberfelder CSV 번역(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34-35절을 다음과 같이 옮깁니다.

[1]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해야 한다.

[2]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복종해야 한다.

[3]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바울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 모인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말을 통한 기여가 그들의 영적 은사에 따라 어떻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곧 그 기여가 품위 있고 사랑 안에서 적절한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은사에 따라 말로 기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호보완주의 해석자들은, 바울이 이 구절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 곧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했을 리 없다고 선뜻 인정합니다.

상호보완주의의 대표적 학설은, 바울이 여기서 여자들의 특정한 종류의 말만을 금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곧 예언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인데, 그들의 견해로는 그것이 “남성의 지도적 역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고 아무 제한이 없는 분명한 말씀과 모순됩니다.

예언을 판단하는 일이 금지되었다는 주장이 옳다면:

- 바울은, 여자들에게 예언 판단만을 금하려 했다면서 여자들의 모든 종류의 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청중을 오도하는 것이 됩니다.

- 그는 그 전면적 금지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세 번이나 되풀이함으로써 청중을 더욱 오도하는 것이 됩니다.
- 그는 예언을 판단할 때에만 적용하려 했다면서, 여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말하지 말라는 금지가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그들을 오도하는 것이 됩니다.
- 그는 금지를 적용하는 유일한 구체적 예로, 비논리적이게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일을 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금하려 했다는 활동과는 다른 활동입니다.
- 그는 누가 예언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바로 앞 29절에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 됩니다. 29절에서 그는 “다른 이들”이 그 말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곧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이들”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사실 그는 11장부터 14장까지 그가 가르친 내용의 핵심 사상 전체와 모순되는 것이 됩니다. 곧 교회의 모든 지체가 자기의 영적 은사에 따라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하는 은사를 가진 여자들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예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두 구절이 바울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현실적 가능성은, 그가 특정한 반대자 무리의 말을 인용한 다음, 이어서 말하는 내용(36-40절)에서 그들의 말을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 가능성은, 이 두 구절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사본의 난외 주석이 편지를 다시 필사하는 과정에서 본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사본들에는 이런 예가 더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본들의 특별한 특징들 때문에, 나는 둘째 이론, 곧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이론이 아마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댄버스 선언은 현명하게도 이 두 구절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절제입니다. 아무도 이 구절들이 바울 자신의 견해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족스러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구절들이 바울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9)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 가르침과 그 결과에 대처하는 법에 관해 지시합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 ESV입니다. ESV는 디모데전서 2:12를 이렇게 옮깁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독일어 Elberfelder CSV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다스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이 구절은 여성 사역에 대한 일반적 제한들을 정당화해 주기 때문에 상호보완주의 사고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구절, 곧 13절과 14절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합니다. 12절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은 바울이 일반적인 행동 규칙을 정한다고 이해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라는 창조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실제로 창조 원리를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리킴으로써 디모데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미혹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때 생기는 위험의 예로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다”가 올바른 번역인지에 관해서도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내 견해로는 “압도하다”나 “지배하다”나 “군림하다”가 더 나은 번역일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여자”가 단수라는 점에 관해서도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에베소의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일반적 진술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그 무리를 이루는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여자입니까, 아니면 그가 바로 앞 9절과 10절에서 말한 특정한 부유한 여자들입니까?

12절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왜 단수로 쓰였는지에 관해서도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브리스길라가 그랬듯이 여자가 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괜찮지만 여자가 남자들의 무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주로 주목할 것은 12절의 짧은 문구, “그러나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입니다.

헬라어로는 단 두 단어, *ouk epitrepō*입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로도, “나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가 문맥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번역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작은 문구,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곧 *ouk epitrepō*는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근거한 일반 규칙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머리 됨”에 관한 상호보완주의 신학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와보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13절)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12절) 말하는 것이며, 이 창조의 순서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갖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라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어기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댄버스 선언은 여자들이 “자기 역할의 제한에 저항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댄버스 선언, 고백 4).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죄스러운 불순종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있다면, 바울의 단어 선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반역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바울이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규정의 내용은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곧 *ouk epitrepō*라는 바울의 단어 선택과 모순됩니다.

여러분이 저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이고, 예를 들어 인간 생명의 거룩함과 살인의 죄악됨을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26-27에, 또 창세기 5:3에, 그리고 다시 창세기 9:6에 쓰여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로, 창세기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가르침을 뒷받침한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거나 쓰는 자신을 진지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므로, 나는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황조차 그렇게 말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옳은지 그른지가 여러분(또는 교황)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또는 교황)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금지를 표현하는 데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꼭 쓰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비인칭화를 통해 그것이 일반 규칙이라는 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을 허락하지 않는다”나 “살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처럼 말입니다.

살인의 예는 창세기와의 연관 때문에 적절합니다. 물론 살인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죄가 더 크든 더 작든, 핵심 요점은 똑같습니다.

이제 나는 바울이 사도로서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가 친히 세운 교회에 대해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반영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이고 반역인, 창조에 근거한 금지를 표현하려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허락을 거절하는 그의 표현은 매우 이상합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서, 그 낯섦을 충분히 표현할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은 양 떼에게 “나는 여러분이 간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거나 “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책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서관이며 일반적인 행동 규칙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디에도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나 “나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반론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 세우신 창조 계획에 근거한다는 일반적 금지에 대해, 그렇게 전례 없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의 글과 마이크 뎡어(Mike Winger)의 영상들을 살펴보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주를 보십시오.)¹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은 바울의 말과 맞지 않습니다.

바울의 단어 선택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은, 그가 일반적인 행동 규칙이나 일반적 금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미혹된 특정 여자 무리에게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마스크라(Tim Mascara)가 표현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은 표준 설계도가 아니라 반창고입니다. <https://timmascara.substack.com/p/reading-1-timothy-together-part-1>.

10)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바울은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에서 장로의 자격 기준 목록을 제시합니다.

존경받는 일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 목록들이 여자를 분명하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 목록들이 분명히 여자를 배제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문자적으로 “한 여자에게만 속한 남자”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3:2와 디도서 1:6에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한 아내의 남편”, “자기 아내에게 신실한”, “단 한 번 결혼한”,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한”, “결혼 생활에 신실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목록은 이어서 후보자의 가정을 언급하며, 두 목록 모두 후보자의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2와 디도서 1:6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특성을 가리키려고 남성형 언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는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록을 시작하는 단어 **dei**의 번역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도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 이미 구약에도 남성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예외가 있었고, 더 넓은 사회에도 이미 예외가 있었으며, 여자들에 대한 예수와 사도들의 태도가 지배적 문화의 태도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여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용했으며, 교회들에 브리스길라, 유니아, 루디아, 그리고 눔바, 뵈뵈 등과 같은 두드러진 여자들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교회에서 장로직이 모든 여자에게 금지된다는 규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핵심 요점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고려해야 할 적합한 후보자에 관한 지침을 주는 것이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위해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을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핵심 요점은, 이 목록들을 필수 요건의 목록으로 읽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독신이 주는 유익에 관해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록들을 구속력 있는 요건으로 해석하면, 바울 자신이 지역 교회의 장로직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없었고, 꾸려 가는 가정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아내도 가정도 자녀도 없으셨던 주 예수 자신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결론일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상황에 맞게 적합한, 유력한 후보자를 알려 주는 지표입니다.

이 목록들이 배우자나 자녀나 가정이 없는 사람들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면, 여자들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목록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표로 보는 우리의 해석은 두 목록 사이의 차이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잘 자리 잡혀 있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3:6에서 후보자가 새로 입교한 자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그레데의 교회들은 새로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그런 요건이 있으면 아무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점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골라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요점을 고르는 기준은, 상호보완주의자들 자신이 자기 입장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디모데전서 2:12는 여성 사역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제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핵심적 중요성은 학자들과 대중적 교사들 모두에 의해 자주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조지 나이트(George Knight)는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에서, 12절은 “남자가 교회의 일차적 지도자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장 분명한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1991년판, 359쪽). 마이크 뎡어(Mike Winger)는 자신의 영상 시리즈 “Women in Ministry”에서, 디모데전서 2장이 교회에서 여성의 지도적 기능을 제한하는 “가장 분명한”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12부, ALL The Debates over 1 Tim 2:11-15, 0:01 지점 및 9:00-9:01 지점).

그러므로 나는 상호보완주의 저자들과 강연자들이 12절에 대한 우리의 핵심 반론에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반론은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반영한다는 일반 행동 규칙, 곧 그것을 무시하면 죄가 되는 일반 규칙을 도입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반 규칙이라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여기서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런 규칙,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 규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바울의 원칙적 결정일 수 있습니까?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여자의 가르침과 권위를 제한하는 디모데전서 2:12의 이 이른바 규칙을,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라는 더 근본적인 규칙의 연장으로 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으므로, 거기서 어떻게든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여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점 가운데 둘째 요점은 모든 요점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더 근본적인 규칙의 뿌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남자의 임무라고 남자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웨인 그루뎀(Wayne Grudem)과 함께 상호보완주의의 주요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댄버스 선언이 “예언적”이며 “아내를 이끌려 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맞선다”고 믿습니다(Piper, “The Current State of Complementarity”, Desiring God 웹사이트, 2022). 파이퍼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영적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파괴적인 죄”입니다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1991년판, 44쪽).

그러나 아내나 여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남자의 이른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파괴적인 죄라면,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교사도 남자들에게 그들이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일러 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 신호 – 붉은 깃발

마지막으로 나는 내 책 True Complementarity(『참된 상호 보완성: 남자와 여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길』)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누군가가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고 명령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곳은 에스더서에 있으며, 그 명령은 참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의 “지혜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명령은 분노하고 양심을 품은 이방 왕이 내린 것입니다. 그의 왕비는, 그가 술에 취해 내린 명령, 곧 그의 국가 연회에서 물건처럼 전시되고 술 취한 손님들의 구경거리가 되라는 명령에 용감하게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에스더 1:22에서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의 명령은,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모든 남자가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16-20절 참조).

왕의 분노가 가라앉은 뒤, 그는 제도화된 형태의 성적 착취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제국의 모든 지방에서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에게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밤마다 젊은 여자 한 사람, 곧 처녀 한 사람을 강간했고, 그 뒤에는 그녀를 자기 후궁 가운데 "쓰고 난 물건"을 두는 구역으로 내쫓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왕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에스더 2장).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연쇄 강간범, 혐오스러운 성범죄자. 그가 성경에서 남자들에게 여자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라고 명령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경고 신호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남성 권력에 대한 그의 비열한 남용은 창세기 3:16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둡게 확증해 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더 공부하기 위하여

For more on the traditional majority view of women's inferiority, and its rejection,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 2.

For more on the complementarian concept of "roles",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 7.

For more on Genesis 2 and 3,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5 and 6.

For more on women in the Old Testament,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7 and 8.

For more on Jesus, the Twelve, and the Gospels,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3 and 4.

For more on 1 Corinthians 7,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 9.

For more on Ephesians 5,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10 and 11.

For more on 1 Peter,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 12.

For more on the New Testament ministries of women,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13 to 17.

For more on 1 Corinthians 11:2-16,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18 to 20.

For more on 1 Corinthians 14:34-35,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21 and 22.

For more on 1 Timothy 2,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s 23 to 29.

For more on elders' qualifications in 1 Timothy 3 and in Titus 1,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 30.

If you a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culture on interpreting the Bible, and about "slippery slopes" (where one change of view leads to another), see True Complementarity: The way of Christ for men and women (Apollos, 2026), chapter 31.

연락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양식을 통해 보내 주십시오.

주

1. 설명의 부재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십시오. Hurley, Man and Woman in Biblical Perspective, 1981: 200–2;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1991: 180–1 (Moo); Knight, The Pastoral Epistles 1992: 140; Mounce, Pastoral Epistles 2000: 120–3; Grudem,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2004: 65–9, 299–302; Blomberg, Two Views on Women in Ministry 2005: 168; Sandom, "Different by Design" 2012: 154–60; Köstenberger와 Köstenberger,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 2014: 205–12; "Women in The Church", 제3판: 155–61 (Köstenberger), 188–90 (Schreiner); Smith, God's Good Design 2019: 2장; Grudem, Systematic Theology, 제2판 2020: 1152, 1161; DeYoung, Men and Women in the Church 2021: 79–80; Kuruvilla, 1 and 2 Timothy, Titus 2021: 4.2.1–2절. Yarbrough(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2018: 175)는 이 어려움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바울의 주된 생각이 "교회 예배에서 통용되던 역할 분담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재치 있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울의 일상적인 관행이었다면, 디모데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재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교해 보자면, 성적 부도덕을 정죄하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관행이었지만, 그가 재치를 발휘하여 디모데에게 "나는 성적 부도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쓰리라고는 진지하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에서 바울의 재치는, 그가 잘못 행동하는 부유한 여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반면에 디모데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1:3; 18-19; 3:15; 4:6-7; 11-16; 5:1; 21-23; 6:2; 11-14; 20-21 참조).

Yarbrough는 각주 309에서 "'허락하다'"가 쓰인 두 곳을 언급하는데, 이 두 곳은 오히려 어려움을 부각합니다. (1) 고린도전서 14:34에서 "허락되지 않았다"는 3인칭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와 달리, 권한 있는 권위가 정한 일반 규칙을 진술하기에 적합합니다. (2) 고린도전서 16:7에서 바울은 언젠가 고린도 사람들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어떤 때에는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때에는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나는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의 이 문제를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Fresh Light from the Biblical Texts 2019: 220에서 다루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내 책을 다룬 상호보완주의 성향의 서평자 가운데 누구도 이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마가복음 10:4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과 마태복음 19:8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이 언급은 신명기 24:1-4에 있는 모세 율법 규정의 효력을 가리킵니다. 그 규정은 아내와 이혼한 남자가 나중에 그녀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했고, 이것은 이혼이 용인되었음을 함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줄인 표현이며, 이 본문들은 1인칭("나는 허락한다")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 율법 어디에도 "나는 허락한다"나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으며, 예수께서도 친히 행동 규칙을 진술하실 때 그런 표현을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